“종도교육·생활불교 실현 힘쓰라”

태고종, 종정예하 신년하례회
서대문 백련사서 200명 참석
운경 종정예하, 상진 스님에게
묵담 스님 ‘육화경’ 휘호 전달
종단 유공자들에 공로패 수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신년법어 후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이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묵담 스님의 친필 휘호를 전달하고 있다.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이 2024년 갑진년을 맞는 태고종도들에게 종도교육 증진과 생활불교 구현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22일 서울 백련사 무량수전에서 ‘갑진년 종정예하 배알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신년하례법회에는 종정예하 운경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김영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한 법회는 선조사스님들에 대한 묵념과 종정예하 신년하례, 참석스님 간상호 하례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운경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중생이 이고득락에 이를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우리는 열린 문으로 나갈 줄 모르고 잠기고 닫혀 있는 문으로 나가려고만 한다. 백년 천년을 잠긴 문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영원히 나갈 수 없다”면서 “모든 중생이 바른 길로,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듯이 우리 종단도 한때 나락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지적한 운경 스님은 “전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종단 안정화에 기여했고,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종단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저도 총무원장스님과 여러 종단 어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운경 스님은 종단이 나아갈 방향으로 종도들의 교육 증진과 생활불교 구현을 제시했다. 스님은 “현재 종단의 교육은 매우 부족하다. 교육이 수행이고, 수행이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행과 교육을 해야 한다”며 “지역단위로 교육을 진행하되, 관장을 총무원에서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제언했다.

이어 “태고종 종헌종법에 ‘생활불교’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종단 의식집 단일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운경 스님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태고종 종정을 지낸 묵담 스님의 〈육화경〉 친필휘호를 전달했다. 〈육화경〉은 불교 교단의 화합을 위해 정한 6가지 계율을 의미한다. 묵담 스님의 휘호에는 육화경의 여섯 계율과 ‘승단총화정진(僧團總和精進)’이 쓰여 있다. 운경 스님은 “50년 전 묵담 스님이 종단에 내린 글씨인데,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이제 종단을 화합·발전시킬 총무원장스님이 오셨으니 이 휘호를 전하려 한다”고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태고종이 불교와 국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종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모든 종단은 이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교화종단이 돼야 한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옛 선조사스님들께서 해오신대로 지극 정성으로 정진한 기도의 원력으로 국운융창을 이끄는 종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경 스님은 염불사 주지 호명 스님, 정방사 주지 혜일 스님,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 열린선원 법현 스님 등 종단 발전에 기여한 스님과 사찰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무허가 사찰건축물 양성화 법 개정

전통사찰법 개정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이용호·김윤덕)’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그동안 전통사찰 경내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로 사실과 다르게 책정된 토지 면적, 경계선, 지목 등을 그대로 사용해오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게 조계종 입장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사찰 경내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비종교용지’로 설정된 경내지를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부담금을 내야 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사찰 전각 등 문화유산 성격의 건축물을 지었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로 방치돼 전통사찰 보전과 활용에도 제한을 받았다.

조계종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숙원이었던 전통사찰 경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게 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문체부와 정부부처, 국회 정각회 등 여야 국회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많은 전통사찰들이 수행과 포교, 불교문화유산의 전승과 같은 고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진우 스님, 대통령실에 ‘민생안정’ 당부

성태윤 정책실장 예방서
명상 보급 중요성도 강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황성운 문화체육비서관의 예방을 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경제와 민생안정을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황성운 문화체육비서관이 배석했다.

진우 스님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며 “정치·사회적 어려움이 많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정재계와 함께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실장은 “스님 말씀을 잘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황성운 비서관에게 불교유산 문제를 설명하고 불교계와 정부 부처 간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국내 문화유산 중 불교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 달함에도 불교유산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사찰들이 해방 이후에 지목변경이 안돼 불법건축물이 돼버린 경우가 많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황 비서관은 “실무진과 잘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또 명상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 명상을 현대화해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라며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우 수습기자



양주 석굴암, ‘천년을 세우다’ 정성 전달

1월 22일 기금 2000만원

양주 석굴암(주지 도일 스님)이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정성을 보탰다.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성금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올해 청룡의 힘을 받아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빨리 입불될 거라 생각하는데 양주 석굴암에서 힘을 보태 예정보다 더 빠르게 바로 모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일 스님은 “그동안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이번 ‘108용 전시회’를 통해 작게나마 종단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도일 스님은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 종로 한국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청룡의 해 108용 특별 전시회’의 수익금을 ‘천년을 세우다’ 불사와 자비나눔으로 회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우 수습기자

齋(재) 의식의 변화 鞋(소형 연)
종이연, 종이용선, 대체용
•태워서 환경오염시킴 없이 한 번 구입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연
•정교한 조각, 화려한 휘장 금단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출원번호 30-2022-0052348
출원번호 030-0949904
가볍습니다 4kg
금단청연
적단청연
규격 W45cm x H65cm 가격 ₩150만원
위패나 사진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서랍식으로 제작됨
포교당 사용
양손잡이가 부착되어 가볍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들고 배에 부착하여 편하게 받들 수 있습니다.
대형 연
영단의 장엄
40여년의 외 길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공단자수 (번)幡
번의 종류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시왕번
•칠여래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010-8441-6814